

마애불 새옷 입다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 봉불 및 헌공의식

선운사 도솔암으로 오르는 서편 암벽 칠송대(七松臺)에는 고려 초기에 봉안된 마애불상(보물 제 1200호, 높이 13m, 너비 3m)이 있다. 마애불상은 평평한 네모진 얼굴, 가느다란 눈과 우뚝 솟은 코, 일자로 도드라진 입술에 엄격한 미소가 가득한 정감 가는 모습으로 오가는 대중을 반겨준다. 하지만 조선 영조 때 마애불을 보호하던 목조 전실이 소실된 후 자연 마모가 가속화돼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런 가운데 지장도량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보물 1200호)이 100일 동안 건식·습식 세척 등 문화재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쳐 1100년 만에 새 옷을 입었다. 도솔암(감원 종고)은 3월 31일 마애불 봉불 및 헌공의식을 봉행했다.

종고 스님은 인사말에서 “마애 부처님을 깨끗이 씻어 봉불하니 도솔산에 미륵의 꽃이 핀 것 같다”며 “미륵신앙의 성취는 개인과 사회의 자유와 평화, 성불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법회에 앞서 “마애불 조성 후 1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번도 관불과 헌공의식을 진행했다는 기록이 없다”면서 “오늘 행사는 1100여 년 만에 마애불이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이다”라고 말했다.

도솔암 관계자는 “그동안 정기 법회가 없었으나 이번 봉불법회를 계기로 매월 음력 5일인 미륵재일에 정기적 법회와 미륵신앙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며 “올 가을께 미륵신앙을 재조명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소실된 미륵전 복원 불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미륵불로 불리는 미륵불의 배꼽부분에는 석회로 메운 흔적이 있다. 그 안에는 선운사를 창건한 김단 선사의 신기한 비결(秘訣)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동학농민전쟁 당시 무장집주 손화중 등 주도세력들이 민심을 모으기 위해 불상의 배에서 비결을 꺼낸 것으로 유명하다. 미륵의 출현을 내세워 민심을 모으기 위해 이 비기를 꺼내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스님들의 저항을 뿌리치고 동학농민운동의 주도세력은 배꼽부분을 도끼로 부숴냈다. 실제로 동학도의 손에 비결이 들어갔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당시에는 비결을 넣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3개월 후인 11월 3일 추운 겨울날씨에도 동학도 수천



새로 단장된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보물 1200호).

명이 모여 최초 교관운동인 삼례 집회(參禮集會)가 열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위봉사 일요가족불자회 ‘선화당’ 개원

사찰에서 수행 정진 중인 스님들의 수행환경 보존을 위해 신도회가 신행활동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완주 위봉사 일요가족불자회(회장 이두연)는 최근 전주시 삼천동 농협농산물 공판장 앞에 ‘선화당’을 개원했다.

법종 스님은 개원식에서 “단순히 공부할 한다는 것은 지식을 얻는 것에 불과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지혜를 얻는 것”이라며 “부처님 지혜를 얻기 위해 공부하는 불자가 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화당은 위봉사에서 정진 중인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환경을 위해 위봉사 신도인 이타순 보살(법명: 원만심)이 200평 규모의 토지와 건물을 보시해 마련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구례지역 마을잔치 어른들 위해 열어

산에는 산수유꽃이 피는 봄날, 산중의 스님들이 나와 지역 어른들과 놀이마당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의 명산인 지리산 화엄사(주지 종삼스님)에서 지인운영중인 구례노인전문요양원(원장 일본스님, 화엄사 총무는 지난 3월 26일, 앞마당에서 노인 위안잔치 개최했다.

신날 행사에는 종삼스님, 종열스님(화엄사 주지) 등 교구 스님들과 성문스님(용문사 주지), 서기동 구례군수를 비롯한 구례군 토지면 어른 300여명이 참여하여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개원 1주년을 맞아 구례지역 어른들을 초청하여 생신잔치, 한정하 명창의 판소리, 가야금병창, 남도민요 등 국악공연과 화엄사-용문사합창단의 축하공연, 기념품 증정이 진행됐다. 요양원 어른 생일잔치에는 박삼덕 어른 비롯한 10명분의 생일잔치가 벌어졌다. 생일잔치는 툄를 끄기, 케익컷팅식, 생일선물 전달로 진행됐다.

한편 구례군노인전문요양원은 지난 2008년 7월 개원하여 현재 60명 어른을 모시고 있고,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광주기관차승무사업소 기관사 임천택

불심으로 달리는 ‘반야열차’ 기관사

“열차에 탄 수 천명의 시민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것이 즐거워요. 졸음이 오면 졸음이 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수경과 광명진언을 노래처럼 외우면 금세 졸음은 가시고, 열차 운전석은 법당이 됩니다.”

임 포교사는 30여 년 동안 60만km 무사고운전을 한 베테랑 철도기관사이다. 광주철도공사 연등회 회장인 그의 또 다른 닉네임은 ‘봉사의 달인’이다.

그를 다른 포교사들이 봉사의 달인으로 칭하게 된 데에는 많은 봉사활동이력을 보면 알 수 있다.

연등회는 기관사 30여 명이 자원봉사와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등회 회원들은 향림사에서 운영하는 우산복지관에서는 노인나들이 행사, 목욕봉사, 노인위안잔치를,



광주철도공사 연등회 임천택 회장.

초등학교 장애인 수용기관인 현 비동산에서는 어린이 돌봄놀이와 재정후원을, 제가노인시설인 대해노인복지센터에서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목욕봉사, 바깥나들이 등을 진행해 왔다.

임 포교사를 비롯한 연등회 회원의 이런 노력이 있었을까, 연등회는 2007년 철도공사(사장 허준영)로부터 장려상을 수상하고, 광주본부로부터는 청년봉사상 수상을 2년 연속했다.

임천택 포교사 또한 2009년 조계종 포교원장상과 중앙당장상 등을 수상했다.

2005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으로부터 받은 공로패는 힘든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간부들은 견책(경징계)을 받았지만 행정 무효소송과정에서 그 사유가 인정되어 견책이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임 포교사의 열성적 자원봉사에 대한 작은 공덕이 아닐까 싶다. 여기에 포교사로서 교량정 보고등학교(소년원) 팀장, 광주지역단 감사 등 포교사단의 각종 업무를 묵묵히 진행한다.

“자원봉사를 자발적으로 처음 시작하려면 속스럽지만 자주 하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진 봉사는 생활이 되고 수행이 됩니다.”

임 회장은 동료나 후배들에게도 자원봉사활동과 불교공부에 동참할 것을 적극 권한다. 특별한 권유 없이도 임 포교사의 모습은 보고 동료 기관사 2명이 포교사가 됐고, 1명이 불교대학을 다닌다고 한다.

불법을 알리는 그의 따뜻한 선행에 열정이 만든 결과물이다. 법회부터 향림사 불교대학을 1기로 졸업할 때까지 임천택 회장은 늘 청일점

이었다.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배운 것을 널리 알리는 포교사를 길을 걷게 됐고, 이후 자연스럽게 자원봉사 활동과 불교공부를 지속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는 그에게 마지막 바람이 있다.

“최근 연등회는 자원봉사와 후원은 잘 이루어지나, 법회가 미진한 편입니다. 연등회의 교육프로그램과 법회를 정상화하여 후배에게 넘겨주는 것이 그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자리를 떠나기 전, 연등회 법회 활성화를 이룰 것을 서원합니다.”

불심(佛心)으로 달리는 기차를 운전하는 임 포교사는 ‘반야열차’ 기관사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의 모습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돼 널리 퍼지고 있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백련사 팔국사 다례문화제 개최

강진 백련사(주지 여연)는 4월 10일 ‘백련사 팔국사 다례문화제’를 봉행한다.

백련사는 고려 고종 19년(1232년) 원묘국사가 백련결사를 일으킨 곳으로 유명하다. 최초의 민간 결사인 백련결사는 고려 후기 몽고군과 왜군의 침략으로 큰 고난을 겪던 민중에게 참회와 염불 수행을 통해 현세를 정토로 만들자는 희망을 주고자 시작했다.

백련결사를 기점으로 백련사에서는 120년간 원묘·정명·원환·진정·원조·원혜·진강·목암 국사 등 8명의 국사를 배출했다.

팔국사 다례제는 백련사가 배출한 여덟 국사에게 율법공양을 올리는 제례의식이다. 다례문화제에는 다례제에 이어 인근 동백숲에서 산사음악회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부도밭에서는 초의 차문화회(회장 여연) 주관으로 들차회가 진행된다. 청소년을 위한 ‘아함 해장선사와 다산 정야



4월 10일 강진 백련사에서 열리는 팔국사 다례문화제 포스터.

옹’을 주제로 답사 및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백련사 만세루에서는 ‘천년의 승결’을 주제로 8-18일까지 열리는 전시회는 이호신, 송필용 화가, 박정호 판화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061)432-0837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추모공원 조성 범시민대회

김대중·노무현 前 대통령 추모·소통

광주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공원조성 범시민대회가 지난 3월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시민대회는 정동채전 민주당 국회의원(원), 이용섭(민주당 국회의원), 강운태(민주당 국회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와 일반시민 300여 명이 참여했다. 광주 문빈정사 앞마당에 두 전직대통령을 추모하고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공원조성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지선 스님은 인사말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상으로 동서화합과 남북협력의 시대, 노무현 대통령은 깨어있는 시민의 주권시대를 열어주었다”며 “기념공원은 두 전직대통령의 정신과 민주화쟁의 연속성과 현재성을 동시에 아우르기 위해 인류 보편의 가치를 품은 무등산 들머리에 민주주의와 지역 화합을 포상할 수 있는 의미로 세워

진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가슴 밑바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아픔과 자부심을 서로 화답할 수 있는 소통과 연대의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범시민대회를 진행한 추모공원조성위는 지난 2009년 5월 노무현대통령 서거이후 영호남의 주요 민주인사들과 고인의 가치를 계승하고자 추모비 건립을 모색한 바 있다. 이어 9월 김대중대통령 서거이후 김대중평화센터와 노무현재단의 추모사업과 병행하여 광주정신에 부합되고 무등산과 조화로운 기념공원 조성을 위해 지선스님을 준비위원장으로 위촉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제 지난 11월 준비위를 구성하고, 12월 광주광역시에 기본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행사관계자는 “향후 4월말 창립총회를 통해 지방정부와 보조를 맞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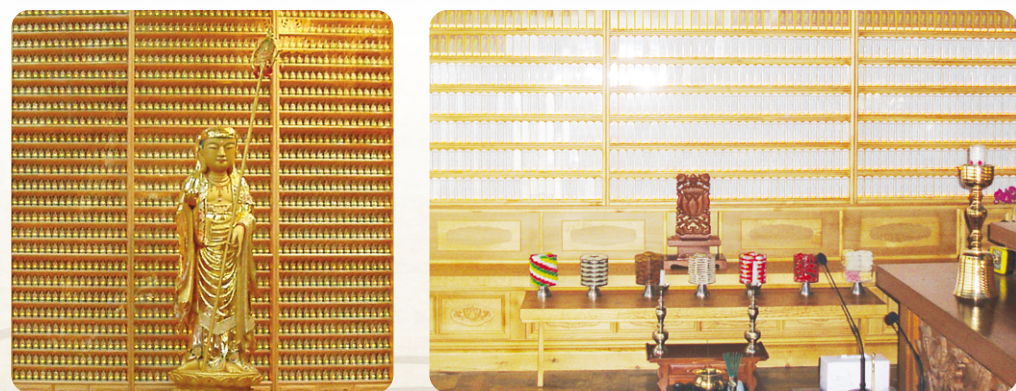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범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중등 주문 받습니다. (사할명 인쇄)



갈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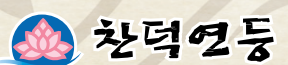
영가등

중등

육바리밀 만월등(육바리밀 주름등)

팔각봉추점등

중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경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